

2021.11.12(금)

현 시 정 보

북경사무소

제목 최근 디지털위안화의 연구·개발 관련 인민은행의 입장

◆ **이강(易綱) 인민은행 총재**는 11.9일 핀란드 신흥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온라인 회의에서 **최근 디지털위안화(E-CNY)의 ① 이용현황 ② 시범사업 ③ 개인정보 보안 ④ 향후 계획** 등에 대한 **입장을 표명**

1. 이강 총재 발언 내용

① 이용 현황

- 대형은행 등에 개설된 **고객의 디지털위안화 전자지갑**(2021.10.8일 기준)이 **1억 2천만여개**, **누적 결제액은 560억위안**에 달함
 - 중국 전역에서 **디지털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** 등이 **350만여개**이며, 고객들은 핸드폰에 탑재된 **전자지갑** 등에 **디지털위안화를 충전**한 뒤 **디지털위안화 가맹점**(음식점, 상점 등)에서 **이용대금을 결제**할 수 있음
 - 또한 인민은행은 금년 2월에 **디지털위안화의 역외 사용도 활성화**하기 위해 BIS, 태국중앙은행, UAE중앙은행, 홍콩통화청 등과 **‘M-CBDC 브릿지’** 사업을 추진중임

② 시범 사업

-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위안화 기초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대형 상업은행, 인터넷기업 등과 함께 디지털위안화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선전 등 일부지역에서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시범사업 지역은 광둥성 선전, 장쑤성 쑤저우, 상하이 등 10개 도시와 베이징 올림픽 개최지 등임
- ※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추진 경과는 <붙임> 참조
-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‘중국 국제수입박람회’ (CIIE, 11.5 ~ 11.10일)에서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을 실시
 - 박람회장이 열린 음식점과 레스토랑, 기념품 자판기, KFC 등에서 디지털위안화로 결제시 최대 50%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

③ 개인정보 보안

-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화 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
 - 개인 간 소액결제와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 등을 구분하되 개인 간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익명성 유지를 원칙으로, 대규모 거액 결제에 대해서는 수집 정보의 범위*를 최소화
- *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자결제앱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
- 아울러 인민은행은 개인정보의 보관, 활용 등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법적 근거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나 여타 정부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것임

4 향후 계획

- 현재 중국내 전자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한 알리페이·위챗페이의 전자결제시스템에 디지털위안화를 연계하여 디지털위안화의 보편성과 접근성 등을 제고할 방침
- 한편, 실물화폐는 디지털위안화와 병존할 것이고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인민은행은 실물화폐를 계속 공급할 예정
 - 아울러 행정명령 등을 통해 디지털위안화와 실물화폐의 교환을 강제하지 않을 것임
-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거래를 염두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인 간 소액 결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
 - 향후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아가면서 디지털위안화의 설계 보완, 관리 모델 구축, 개인정보 보호 및 위조방지 기능 강화, 기존 전자결제 수단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

2. 평 가

- 기 개설된 디지털위안화 전자지갑이 1억 2천만개를 초과한 것은 사실상 디지털위안화의 연구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며,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위안화의 보급 및 홍보의 중요 계기로 이용할 전망(SCMP 등)
- 알리페이·위챗페이와 디지털위안화를 연계하는 것은 디지털위안화가 법정화폐임을 내세워 대형 인터넷기업 등이 기 구축한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, 디지털위안화의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
 - 이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사실상 장악한 소액 전자결제시장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

- 디지털위안화는 인민은행이 관리·통제한다는 점에서 주로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암호자산과는 성격을 달리하며, 디지털위안화를 보유, 사용할 경우 거래정보가 인민은행에 집중되므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

- 또한 인민은행이 실물화폐의 공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디지털 위안화로 일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

<붙임>

중국의 디지털위안화 추진 경과

시기	내용
2014	• 인민은행, 디지털화폐연구팀(数字货币小组) 설치
2015	• 인민은행,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련 연구보고서 발표
2016	•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하는 테스트 최초 실시
2017	• 인민은행, 디지털화폐연구소(央行数字货币研究所) 설립
2019.12 ~2020.5	•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디지털화폐 유통결제에 대한 “폐쇄식 테스트(闭环测试)” 실시 - 4대 국영은행 및 3대 통신사가 공동으로 DC/EP 결제 및 유통기능 테스트
2020.2	• 디지털화폐연구소 및 인민은행 인쇄과학기술연구소, 디지털화폐 특허출원(65건 및 22건)
2020.4	• 이강(易纲) 인민은행 총재,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‘비공개 파일럿테스트(封闭试点测试)’ 가 진행중이라고 발언 - 선전(深圳), 쑤저우(苏州), 청두(成都), 송안특구(雄安新区), 북경동계올림픽 현장 등
2020.5	• 이강(易纲) 인민은행 총재,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화폐의 안정성 테스트가 진행중이나 공식 발행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발언(何时正式推出尚没有时间表)
2020.8.14	• 상무부, 징진지(베이징·톈진·허베이성), 장삼각(상하이와 장쑤성, 저장성, 안후이성 일대), 웨강아오 대만구(광둥성·홍콩·마카오) 등의 시범지역에서 디지털위안화 발행 및 유통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
8.19	• 심천시, 디지털화폐 연구와 모바일결제등 금융기술 혁신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힘 • 하이난자유무역항, 국경간 무역, 자금이동, 투자 등에 있어서 디지털위안화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
8.25	•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(孙国峰), 디지털위안화 파일럿 테스트는 연구개발 과정의 일상적인 작업이며 디지털위안화의 공식 출범시기에 관한 시간표는 없음
9. 5	• 통저우구(通州区), 디지털화폐 유통 및 신형금융상품 판매 등 자산관리분야의 27개 개혁을 달성할 방침
9. 6	• 북경시, 동계올림픽 등을 활용하여 북경에서 디지털화폐를 유통함으로써 첨단 분야에서 북경이 앞서나갈도록 적극 지원
10.12	• 인민은행, 광둥(广东)성 선전(深圳)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5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200위안씩 배포하는 등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사용
12.11	• 인민은행, 장쑤성(江苏省) 쑤저우(苏州)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10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200위안씩 배포하는 등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용을 확대
12.29	• 인민은행, 디지털위안화(E-CNY) 개인사용 테스트를 12.29일(화)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실시 - 테스트 지역은 디지털화폐연구소(소장 穆长春) 인근 만마오 커피숍(漫猫咖啡)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등을 테스트
2021.1월	• 인민은행, 상하이(上海)에서 하드웨어 지갑 첫사용 테스트
1. 7	• 인민은행, 선전(深圳)에서 10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200위안 배포
2. 1	• 인민은행, 선전(深圳)에서 10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200위안 배포
2.10	• 인민은행, 베이징(北京)에서 5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200위안 배포
2.10	• 인민은행, 쑤저우(苏州)에서 15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200위안 배포
3. 3	• 인민은행, 청두(成都)에서 20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178위안(또는 238위안)을 배포
3월	• 인민은행, 선전(深圳)에서 홍콩과 디지털위안화 역외 테스트
6. 5	• 인민은행, 베이징(北京)에서 디지털위안화(200위안) 20만개를 주민들에게 추첨 배포
10.12	• 인민은행, 베이징(北京)에서 대중교통요금을 디지털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실시
11.5~10	• 인민은행, 상하이(上海)에서 개최된 ‘중국 국제수입박람회’ (CIE)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실시(음식점 등에서 디지털위안화 결제시 최대 50% 할인)

주: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참조하여 정리